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Relationships with Parental Attitudes

이 지 선*

Lee, Ji Sun

정 옥 분**

Chung, Ock Boon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EI) was investigated with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Saarni, 1990), and children's EI was assessed by a teacher rating scale developed by Kim(1999). The subjects were 121 triads of 3- to 6-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s α , two-way ANOVA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differences in level of EI as a function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both mother's and father's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age; an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attitudes toward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I. Children's age and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explained 46.7% of children's EI.

Key Words :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parent'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유아의 성별 및 연령(children's gender and age)

* 접수 2001년 12월 31일, 채택 2002년 1월 21일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E-mail : kelly94@korea.ac.kr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예로부터 유교(儒敎)에서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 하여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믿음 등의 타인과 함께 서로 배려하고 융화하는 자세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20세기의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현대인들은 이러한 인간중심의 소중한 가치들을 망각하고 점차 사회적 성공만을 지향하여 결국 인간사이의 경쟁만이 과열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 더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규격화된 인간상만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동들에게조차 부적응, 또래로부터의 소외, 집단 따돌림, 우울증,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의 범죄 발생률은 10.7%였으나 1999년에는 12.8%로 증가했으며, 1998년의 자살률은 19.9%로 1989년의 자살률 8.7%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회 문제는 인지적 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지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대인관계 중심의 사회적 능력을 강조하는 지능에 대한 새로운 견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1990년 Salovey와 Mayer는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으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Salovey와 Mayer(1990, 1996)는 정서와 지능은 상반된 것이 아니며 정서는 적응적이고 기능적이어서 인지활동과 후속행동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결국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서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사회에 적응

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그 후 Goleman(1995)은 이러한 Salovey와 Mayer(1990, 1996)의 입장과 관련하여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를 발간하면서 EI(Emotional Intelligence) 또는 EQ(Emotional Quotient)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다. Goleman(1995)은 IQ 검사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등과 같은 표준화 검사로 측정된 인지적 능력에만 의존하여 개인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온 지금까지의 관습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정서지능 개념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였다. Salovey와 Mayer(1990, 1996) 또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학업성취나 직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정서지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정서지능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의 능력을 개념화 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Gardner, 1983; Salovey & Mayer, 1990; Sternberg, 1985).

Goleman(1995)은 특히 영유아기의 정서경험이 성장한 이후의 정서반응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Salovey와 Mayer(1996)는 개인의 정서적 기술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감정을 가정 이외의 사회상황에도 연관시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는 정서지능의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된다. 결국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효율적인 자세

로 반응함으로써 뛰어난 정서지능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Goleman, 1995). Dunn, Brown 과 Bearsall(1991)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변인 중 특히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는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표현 행동조정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아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Fabes, Eisenberg, 그리고 Miller(1988)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김순정(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은 각각 부적,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이현민(1998)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태도와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아동 스스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최근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평정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김경희, 1999; 신혜숙, 2001; 이병래, 1997)와 정서지능과 유아 발달의 제 영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신미리, 1999; 윤지영, 2001; 윤현석, 1997),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지현, 2000; 장정희, 2001)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이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부모관련변인으로서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 경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과 관련하여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촉진시키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아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유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1. 유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2.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1.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정서지능은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1. 유아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정서표

- 현 수용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2. 유아의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가?
 4.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인천시, 일산시 등의 수도권에 위치하는 4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만 6세의 유아 121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상 유아들을 6개월 이상 지도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11명이 유아 정서지능의 평정자로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만 3세~만 6세의 유아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유아기의 어린 아동도 정서인식과 정서조절 능력 등이 발달한다는 Reissland와 Harris(1991), Wintre와 Vallance(1994) 등의 연구에 근거하여 만 3세~만 6세 유아들도 정서지능의 발달 및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 도구

1)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희(1999)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용 평정 척도를 선택한 것은, 첫째 유아의 발달특성상 정의적 영역을 평가할 때 성인과 같이 자기보고식 검사, 또는 검사지를 통해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유아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어머니의 평가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일관성이 있으며 객관적(Billman & McDevitt, 1980)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경희(1999)의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는 자기 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의 6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가 평소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척도는 문항 분석 및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분석하여 내용 타당도를 입증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구성타당도를 입증한 바 있다. 김경희(1999)가 보고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6에서 .92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5$ 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5에서 .91까지 분포되었다.

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aarni(1990)가 개발한 PACES(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한 후 만 3세~만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하기에 적당하도록 문항을 수정·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기타사항
유아의 성별	남	70	57.9	
	여	51	42.1	
유아의 연령	만 3세 (36 - 47개월)	11	9.1	평균월령 41.72개월
	만 4세 (48 - 59개월)	38	31.4	평균월령 51.71개월
	만 5세 (60 - 71개월)	34	28.1	평균월령 65.68개월
	만 6세 (72 - 84개월)	38	31.4	평균월령 74.55개월
어머니의 연령	만 30세 이하	8	6.6	
	만 31 - 40세	105	86.8	
	만 40세 이상	8	6.6	
아버지의 연령	만 30세 이하	1	0.8	
	만 31 - 40세	93	76.9	
	만 40세 이상	27	22.3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2	1.7	
	고 졸	45	37.2	
	전문대졸, 대학중퇴	20	16.5	
	대 졸	48	39.7	
	대학원 졸업 이상	6	5.0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0	0.0	
	고 졸	29	24.0	
	전문대졸, 대학중퇴	14	11.6	
	대 졸	61	50.4	
	대학원 졸업 이상	17	14.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 업	56	46.3	
	비 취 업	65	53.7	
가정의 월수입	100 - 200만원 미만	22	18.2	
	200 - 300만원 미만	51	42.1	
	300 - 400만원 미만	26	21.5	
	400 - 500만원 미만	18	14.9	
	500만원 이상	4	3.3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현민(1998)의 연구에서 이미 PACES를 번안·수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에게 사용한 바 있으며, 김순정(2001)의 연구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연령 및 기타 특성에 적합하도록 Saarni(1990)의 PACES를 본 연구자들이 다시 번안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PACES는 자녀의 가설적인 정서 표현 행동에 대한 부모의 수용·통제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각의 문항은 자녀의 정서표현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인 반응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점은 매우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4점은 매우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수를 역으로 채점하여 1점은 매우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고 4점은 매우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Sarmi(1990)는 PACES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의 검증을 통하여 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보고한 바 있다. Saarmi(1990)가 보고한 PACES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9$,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6$, PACES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 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측정도구를 우리 말로 번안한 후 아동학 전공교수 1인과 아동학 석사 2인으로부터 번안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하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만 6세의 유아 34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34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17일부터 2001년 9월 21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 유아들을 6개월 이상 지도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4명이 유아 정서지능의 평정자로서 참여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만 6세의 유아 121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121명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 4일부터 10월 13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유아들을 6개월 이상 지도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11명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11개 반(만 3세 유아반 2개, 만 4세 유아반 3개, 만 5세 유아반 3개, 만

6세 유아반 3개)의 유아 정서지능의 평정자로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집 방법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의 정서지능 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해내어야 하는 관계로,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유치원들을 편의 표집하였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가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각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어 재원중인 유아의 부모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버지용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교사들에게는 지도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정서지능의 평정을 부탁하고 주의사항을 간단히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각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최소 5일~최대 7일까지의 시간을 둔 후,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버지용 질문지, 교사용 질문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3개의 질문지가 쌍을 이루어 완성된 질문지만 회수하였기 때문에, 약 60%의 비교적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363 (= 121×3)부의 질문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정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고 이원변량분석, Scheffé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정서지능

1)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평균점수 3.80)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평균점수 3.32)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아의 정서지능(평균점수 3.74)이 남아의 정서지능(평균점수 3.4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아와 남아 모두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평균점수 3.56, 3.15)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수준을 살펴보면, 만 5세의 유아의 정서지능(평균점수 3.79)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만 3세의 유아의 정서지능(평균점수 3.11)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

전체적인 정서지능 및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체적인 정서지능은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지능 하위 요인 중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범주에서는 모두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모든 영역에서 여아 집단의 평균점수가 남아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n=121)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자기정서의 이용	성별(A)	1	4.26	4.26	9.07**
	연령(B)	3	14.59	4.86	10.36***
	A × B	3	2.66	.89	1.89
	오차	113	53.04	.47	
	전체	120	72.91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성별(A)	1	7.58	7.58	16.92***
	연령(B)	3	9.84	3.28	7.32***
	A × B	3	1.74	.58	1.30
	오차	113	50.62	.45	
	전체	120	68.36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성별(A)	1	.01	.01	.02
	연령(B)	3	.76	.26	.37
	A × B	3	1.47	.49	.71
	오차	113	77.80	.69	
	전체	120	80.15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성별(A)	1	7.75	7.75	12.20**
	연령(B)	3	7.08	2.36	3.71*
	A × B	3	2.78	.93	1.46
	오차	113	71.78	.64	
	전체	120	86.89		
대인관계기술	성별(A)	1	1.80	1.80	2.61
	연령(B)	3	4.52	1.51	2.19
	A × B	3	3.27	1.90	1.59
	오차	113	77.70	.69	
	전체	120	88.24		
전체	성별(A)	1	3.23	3.23	10.48**
	연령(B)	3	5.84	1.95	6.32**
	A × B	3	1.74	.58	1.89
	오차	113	34.81	.31	
	전체	120	44.70		

*p<.05 **p<.01 ***p<.001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의 이용과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는 모두 만 3세 집단과 만 5, 6세 집단간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만 3세 집단과 만 6세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에 관한 Scheffé 검증

하위 요인	연령 (만)	대상수 (명)	평균	Grouping
자기정서의 이용	3세	11	2.73	A
	4세	38	3.28	AB
	5세	34	3.78	B
	6세	38	3.77	B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3세	11	2.97	A
	4세	38	3.39	AB
	5세	34	3.82	B
	6세	38	3.84	B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3세	11	2.85	A
	4세	38	3.11	AB
	5세	34	3.46	AB
	6세	38	3.56	B

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1)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일반적 경향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아(평균점수 2.82)와 비교하여 남아(평균점수 2.70)에게 더욱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여아(평균점수 2.81)와 비교하여 남아(평균점수 2.62)에게 더욱 엄격·통제적인 태도

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2)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하위요인 중 두려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 두려움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하여 여아에게는 더욱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남아에게는 더욱 통제·억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하위요인 중 화, 호기심, 혐오감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화, 호기심, 혐오감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하여 여아에게는 더욱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남아에게는 더욱 통제·억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화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만3세 집단과 만 5세, 6세 집단간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n=121)

하위요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화	성별(A)	1	3.738E-05	3.738E-05	.00
	연령(B)	3	.37	.12	.41
	A × B	3	1.53	.51	1.69
	오차	113	34.09	.302	
	전체	120	36.31		
슬픔	성별(A)	1	1.02	1.02	2.34
	연령(B)	3	.31	.10	.24
	A × B	3	.26	.08	.20
	오차	113	49.42	.44	
	전체	120	50.84		
두려움	성별(A)	1	.99	.99	5.16*
	연령(B)	3	.62	.21	1.07
	A × B	3	.96	.32	1.66
	오차	113	21.70	.19	
	전체	120	24.05		
불안	성별(A)	1	4.534E-02	4.534E-02	.18
	연령(B)	3	9.330E-02	3.110E-02	.12
	A × B	3	.22	.07	.28
	오차	113	28.81	.26	
	전체	120	29.36		
호기심	성별(A)	1	.14	.14	.92
	연령(B)	3	.24	8.104E-02	.53
	A × B	3	.24	.07	.52
	오차	113	17.44	.15	
	전체	120	18.20		
행복	성별(A)	1	.35	.35	.82
	연령(B)	3	.70	.23	.55
	A × B	3	.70	.23	.55
	오차	113	48.03	.43	
	전체	120	49.90		
협오감	성별(A)	1	.63	.63	.94
	연령(B)	3	1.38	.46	.68
	A × B	3	1.82	.61	.90
	오차	113	76.22	.67	
	전체	120	80.63		
전체	성별(A)	1	.27	.27	2.83
	연령(B)	3	1.991E-02	6.635E-03	.07
	A × B	3	4.974E-02	1.658E-02	.18
	오차	113	10.74	9.501E-02	
	전체	120	11.23		

*p<.05 ***p<.001

〈표 5〉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n = 121)

하위요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화	성별(A)	1	1.19	1.19	4.04*
	연령(B)	3	3.45	1.15	3.89*
	A × B	3	.93	.31	1.05
	오차	113	33.38	.30	
	전체	120	38.98		
슬픔	성별(A)	1	8.431E-02	8.431E-02	.06
	연령(B)	3	2.56	.86	.57
	A × B	3	1.26	.42	.28
	오차	113	170.02	1.51	
	전체	120	149.66		
두려움	성별(A)	1	.93	.93	2.83
	연령(B)	3	6.648E-03	2.216E-03	.00
	A × B	3	.34	.11	.35
	오차	113	37.01	.33	
	전체	120	38.92		
불안	성별(A)	1	.54	.54	.83
	연령(B)	3	.66	.22	1.00
	A × B	3	.96	.32	.49
	오차	113	74.23	.66	
	전체	120	83.60		
호기심	성별(A)	1	3.43	3.43	13.87***
	연령(B)	3	.54	.18	.73
	A × B	3	.44	.15	.59
	오차	113	27.90	.25	
	전체	120	32.19		
행복	성별(A)	1	6.196E-04	6.196E-04	.00
	연령(B)	3	2.78	.93	1.99
	A × B	3	.66	.22	.47
	오차	113	52.66	.47	
	전체	120	55.93		
혐오감	성별(A)	1	3.82	3.82	5.44*
	연령(B)	3	1.71	.57	.81
	A × B	3	2.01	.67	.96
	오차	113	79.36	.70	
	전체	120	89.24		
전체	성별(A)	1	.86	.86	5.70*
	연령(B)	3	.73	.24	1.64
	A × B	3	.26	8.521E-02	.56
	오차	113	17.14	.15	
	전체	120	19.21		

*p<.05 ***p<.001

<표 6> 유아의 연령에 따른 화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에 관한 Scheffé 검증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영역	연령 (만)	대상수 (명)	평균	Grouping
화	3세	11	2.20	A
	4세	38	2.63	AB
	5세	34	2.79	B
	6세	38	2.76	B

3.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제 하위요인들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52, p < .05$). 전체적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지

능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55, p < .01$). 전체적인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모두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와 가장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행복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에 높은 상관이 있었다.

4.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이 유아의 정서지능을 얼마만큼 설명하고 예언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들간

<표 7>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n=121)

		정 서 지 능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대인관계기술	전체적 EI
정서표현수용태도	화	.25**	.30**	.23*	.26*	.33*	.36**
	슬픔	.25**	.14	.23*	.12	.17	.25**
	두려움	.19*	.33**	.09	.27**	.18*	.28**
	불안	.18*	.18*	.18	.11	.20*	.23*
	호기심	.18*	.18*	.18*	.17	.26**	.26**
	행복	.36**	.35**	.26**	.39**	.37**	.46**
	협오감	-.01	.07	.08	.03	.02	.008
전체적 수용태도		.39*	.43*	.31*	.39*	.42*	.52*

* $p < .05$ ** $p < .01$

〈표 8〉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n = 121)

		정 서 지 능					전체적 EI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대인관계기술	
정 서 표 현 수 용 태 도	화	.39**	.37**	.15	.26**	.27**	.39**
	슬픔	.14	.24**	.24**	.16	.28**	.19*
	두려움	.27**	.19*	.25**	.04	.28**	.28*
	불안	.07	.16	.08	.12	.10	.14
	호기심	.28**	.34**	.13	.20*	.28**	.33*
	행복	.45**	.48**	.31**	.40**	.42**	.55*
	협오감	-.07	.05	.11	.05	.04	.03
전체적 수용태도		.47**	.51**	.33**	.35**	.48**	.55**

*p<.05 **p<.01

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beta = .374, p < .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beta = .349, p < .001$), 유아의 연령($\beta = .267, p < .001$) 순으로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들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46.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 = .467, F = 27.24, p < .001$).

〈표 9〉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의 중다회귀 분석

변수	B	β	t	F
유아의 성	.111	.090	1.301	27.24***
유아의 연령	.166	.267	3.993***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696	.349	4.802**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571	.374	5.083***	
상수	-.505		-1.236	
R ² = .484				
Adjusted R ² = .467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1.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경향을 살펴 보면, 유아의 전체적인 정서지능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정서지능 하위 요인 중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범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모든 영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정서지능이 남아의 정서지능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김경희, 1999; 이병래, 1997; 이현민, 1998; 윤현석, 1997)와 일치하는 반면,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곽윤정(1997)의 연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성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아동이 성에 따라 부모에 의해 다르게 취급받으며 이로 인하여 아동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양성간 차이를 가져온다(Droppleman & Schaeffer, 1963)는 견해와 정서의 조절 및 적응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가족의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대인관계 역할 기능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Brody & Harrison, 1987), 그리고 정서적 유능성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Saarni, 1990)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경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전체적인 정서지능과 정서지능 하위 요인 중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범주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3세 집단보다 5세 집단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의 수준도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김경희(199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반면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곽윤정(1997)의 연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에 대한 대조적인 결과들은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지능 척도 구성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김경희(1999)의 연구에서는 만 3세~만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을 살펴본 반면, 곽윤정(1997)의 연구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만 3세~만 6세 유아의 경우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정서 및 인지 능력의 발달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한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이 더이상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4세가 되면 여러 정서를 동시에 인식하고 복합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 정서표현발달이 8세 아동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한 Wintre, Polivy와 Marray(1990), Wintre와 Vallance(1994)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능력이 가장 빨리 발달한다는 김경희(1999)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유아의 정서능력은 대체적으로 비교적 기초적인 정서능력의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비교적 복합적인 정서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정서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연령에 따른 발달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만 3세~만 6세 유아의 정서지능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지능의 발달 경로를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수준의 차이는 반드시 성에 따

른 생리학적 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어머니의 경우 여아의 두려움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하여 더욱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으나, 남아의 두려움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는 여성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남성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남성답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성별에 따른 두려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 역시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형성되는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정서표현 수용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는 여아의 화, 호기심, 혐오감 등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더욱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남아의 화, 호기심, 혐오감 등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더욱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 역시 여성에게는 비교적 다양한 정서의 표현이 허용되지만 남성에게는 화, 호기심, 혐오감 등과 같은 정서표현까지도 남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간주하여 결국 여성에게는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서표현을 지향하도록 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서표현에 대

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부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성별과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 중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방식과 기대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공인숙, 1989; 오성심·이종승, 1982; 이수연, 1985; 조희진, 1982; Becker, 1964; Rothbart & Maccoby, 1970)와 일치하는 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태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강운숙, 1987; 김영순, 1986; 심영현, 1981; Maccoby & Martin, 1983)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깊은 유교 문화권에 있으므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하여 비교적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여해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여성에게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서표현을 허용하고 지향하게 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정서표현을 더욱더 억제하도록 이끄는 현대의 모순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수준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수준의 차이가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수용·허용적일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행복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에 높은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특히 유아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수준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애정적인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며 흥분했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에 더욱 유능하고 화를 적게 낸다는 Goleman(1995)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허용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협동심 및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는 Watson(1957)의 보고 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슬픔과 불안 등의 정서를 표현하도록 따뜻하게 북돋워 줄 때 자녀들은 더욱 동정적이고 적응을 잘하며, 능력 있는 사회적 행동 유형을 발달시켰다는 여러 선행연구들(Eisenberg & Fabes, 1992; Hyson, 1994; Roberts & Strayer, 1996)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정적 상관,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행복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기 자녀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연령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46.7%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beta=.374, P<.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beta=.349, P<.001$), 유아의 연령($\beta=.267, P<.001$) 순으로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나 배경변인 등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즉 아동 스스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이현민(1998)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현민(199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 3세~만 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이러한 대상의 차이가 대조적인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학령기의 아동과 비교하여 학령전의 시기에 있는 유아는 비교적 가정내의 환경변인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는 수용·허용적인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유아의 정서지능의 함양을 위하여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

한 부모의 수용태도는 유아의 연령의 증가와 함께 비교적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는 여아와 남아에 대하여 차별적인 성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을 형성하고 내면화해온 우리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와 여아와 남아에 대하여 더욱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는 현대양육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여성과 남성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유교 문화권에 있었으므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여아에게는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서표현을 허용하며 지향하는 반면 남아의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현대 사회의 모순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형성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유아의 정서지능의 발달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아의 정서지능의 이해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함양을 위한 노력은,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같은 부모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 노력과 함께 유아의 발

달 및 사회·문화적 배경, 즉 다양한 유기체 요인과 여러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거시적인 생태학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의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탐색 및 영향력 규명에 관한 연구는 여러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함께 비교하는 비교문화적 연구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의 소수의 표본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근거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는 교사의 배경 변인 등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본 척도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정서지능 평정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훈련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만을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 및 또래집단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운숙(198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 두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곽윤정(1997). 정서 지능 발달 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

- 구논문.
- 곽현주(1995). 정서 교육 활동 경험이 유아의 감정 이입 및 사회 정서적 문제 해결과정서 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1996).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 토론. 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 대회,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모색 : 유아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 _____. (1997).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0(1), 43-56.
- 김경희(1999). 유아용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정(2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순(1986). 어머니의 육아방식과 아동의 인지적 조망수용 능력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2000).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창대(1997). 정서 지능 개발과 활용. 1997년 청소년 상담 학술 세미나.
- 김희진(1996). 감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대회, 성숙한 감성 교육의 방향모색 : 유아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 신미리(1999). 유아의 정서 지능과 창의성, 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재은(1997). 정서지능의 구인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숙(2001). 정서지능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영현(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법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 *Research Bulletin*, RB-11-1.
- 윤지영(2001). 유아의 성, 나이에 따른 정서지능과 적응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래(1997). 정서 지능 개념의 성립, 열린 유아교육 연구, 1997년도 12월.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정희(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제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umrind, D. (1968). Authoritarian vs.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Adolescence*, 111, 255-272.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illman, J., & McDevitt, S. C. (1980). Convergence of parent and observer rating of temperament with observations of peer interaction in nursery school. *Child Development*, 51, 395-400.
- Brody, L., & Harrison, R. (1987).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bilities to match and label emotionally laden situ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11, 347-365.
- Brown, K., Covell, K, & Abramovitch, R. (1991). Time course and control of emotion : Ag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37, 273-287.
- Campbell, S. B. (1973). Mother-child interaction in reflective, impulsive & hyperact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341-349.

- Cassidy, J., Parke, R.,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Darwin, C. (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1872).
- Droppleman, L. F., & Schaeffer, E. S. (1963). Boy's and Girl's reports of Maternal and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48-654.
- Dunn, J., & Brown, J. (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Dunn, J., Brown, J.,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pp. 119-150). CA : Newbury Park.
- Fabes, R., Eisenberg, N., & Miller, P. (1988). *Mother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iladelphia.
- Gardner(1983). *Frames of mind; the theories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Hyson, M. C. (1994).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ontext : The Contributions of Family, School, and Cul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1047-1055.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of child Psychology*(pp. 92-121).
- Mayer, J. D., Dipaolo, M. T., & Salovey, P.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Reissland, N., & Harris, P. (1991). Children's use of display rules in pride-eliciting situa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3), 431-435.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Rothbart, M. K., & Maccoby, E. E. (1970).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Readings.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 303-314.
- Saarni, C. (1990a).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PACES). Unpublished Manuscript, Sonoma State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7-301).
- _____, (1990b).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 become integrated. In Tomson, R. A.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pp. 115-182). Linc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 Another Way to be Smart?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pp. 5-58).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_____,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pp. 103-181). 삼성 생명 사회정신연구소,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Sternberg, R. J. (1985). *Beyond IQ :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Commentary : Reforming school reform : Comments on "multiple intelligences : The theory in practice." *Teachers College Record*, 95, 561-569.
- Watson, G. A.(1957). Some personality difference in child related to strict or permissive parental discipline. *Journal of Psychology*, 3(1), 227-249.
- Wintre, M. G., Polivy, J. & Murray, M. A. (1990). Self-prediction of emotional response patterns : Age, Sex,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Child Development*, 61(4), 1124-1133.
- Wintre, M. G., & Vallance, D. D. (1994). A developmental sequence in the comprehension of emotions : intensity, multiple emotions, and va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509-514.